

2021년 8월 1주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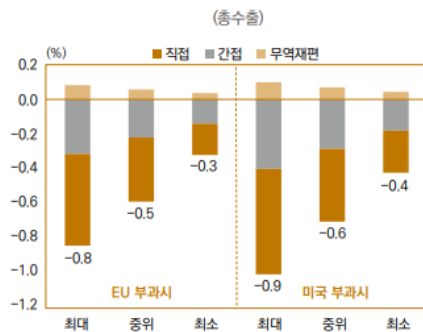
Issue Check:

한국은행, 탄소국경세 부과 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9일 한국은행,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 EU 및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톤당 50달러)'와 탄소국경세를 감면(톤당 35달러)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별로 분석
- EU 및 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주력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EU 도입으로 연간 0.5%, 미국 도입으로 0.6% 감소해 전체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p, 미국 부과시 0.15%p), 금속제품(철강, 각각 0.10%p, 0.13%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다만, 향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을 인정받아, 탄소국경세를 감면 받을 경우에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예를 들어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中

<그림 9-10> 탄소국경세 부과시 우리 수출 영향¹²⁾



자료: 한국은행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7/26~30)

▲ 기후 및 환경 관련

7/26	<p>China says EU's planned carbon border tax violates trade princip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생태환경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사회의 상호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 - 한편, 중국 청화대 산업개발 및 환경 지배구조센터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등 제조 산업에서 강국인 중국은 탄소국경세 제도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 입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지만 해당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며, 탄소세 부과가 중국의 발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 <p>https://reut.rs/3kW6yRr</p>
7/26	<p>정부, 탄소저감 기술에 R&D 세액공제...자발적 기후대응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철강과 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기업이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할 경우 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탄소저감 기술개발 투자액의 20~3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30~40%를 공제받을 예정 - 정부의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현재 일반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2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세 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은 현재 사용되는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고용량 양극재와 수명이 긴 음극재, 신뢰도가 높은 분리막과 전해액 제조기술 등이 해당 <p>https://bit.ly/3f1Zi97</p>
7/27	<p>Strained G20 climate talks could yet deliver progress on co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완전 철폐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 자금 조달 중단 및 석탄발전 폐지 확정일자 지정 등이 주요 안건이었던 G20 정상회의가 종료 됨. 로베르토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는 10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가 협의의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일부 싱크탱크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최된 회의가 10월 G20 정상회의와 11월 COP 26 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 한편 이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1.5도까지 제한하겠다는 공동 목표나 탄소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COP 26 회의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국가(인도, 남아공, 한국)를 지적 - 또 일각에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및 화석 연료 종식과 관련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 대표적으로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향후 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종식 등과 관련해 훨씬 더 용기있는 결정이 내려질지 바란다'고 주장 <p>https://reut.rs/3fj5hAr</p>
7/27	<p>Top Soy, Coffee, Sugar Ports Tackle Climate Change in Brazi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브라질, 규제 당국은 세계 최대 커피, 대두, 설탕 생산 허브인 '해양 허브(maritime hub)'에서 기후 변화의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작업 진행 중. 국립수로교통국(National Agency for Waterway Transportation)과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 함께 항구 지역의 강풍, 해수면 상승 등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기후 리스크 해소를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 해양 허브에 개별 기상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Natalia Pereira, 브라질 내 2번 째로 많은 대두를 수출하는 Rio Grande 항구 지역 풍속이 지난 2년 동안 10% 증가했다고 지적. 덧붙여 연구를 통해 실제로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니고 50년 후에는 항구에도 똑같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 <p>https://bloom.bg/3xaHakf</p>
7/28	<p>U.S. banking regulator taps official to oversee climate change risk to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은행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후 변화 리스크 책임자(Climate Change Risk Officer) 직위 신설. 가장 최근 BoA의 금융활동을 감독하는 작업에 참여한 OCC 관리자 Darrin Benhart가 해당 직무를 맡을 예정 - 통화감독청(OCC)의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 체제 하에서 금융 규제당국이 기후 변화를 금융 시스템 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편 OCC는 27일(현지시간)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들이 기후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설립한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가입했다고 공식 <p>https://yhoo.it/3x9PutN</p>
7/28	<p>Critical measures of global heating reaching tipping point, study fin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농도, 해양 열용량(ocean heat content), 얼음 질량 등과 관련된 31 개의 지구 활력 지표 중 16개가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 - William Ripple 美 오리건주립대 생태학 교수, 지구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전환적순간)를 넘어섰거나, 근접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해당 지표들은 끊임 없이 진행된 비즈니스들의 결과를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과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으며 대신 혁신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섰다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탄소 배출 절감에는 거의 영향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화석연료 사용은 2020년에 약간 감소한 수준이었지만, 바이오사이언스 지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이 2020년과 2021년 모두 대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도 비중이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

- 뿐만 아니라 해양의 산성화 문제 또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였고, 만일 해양 온도가 더욱 따뜻해지면 5억 명 이상 인구의 식량, 관광 비용, 폭풍해일 방지를 책임지고 있는 산호초 생태계에 더욱 큰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

<https://bit.ly/3BYJxU6>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 동시 도입하면... "한국 수출 감소 미미"

7/29 - 29일 한국은행은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이 1%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예상대로 탄소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줄어들 것으로 분석. 미국까지 같은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0.6%(\$0.9억) 더 위축돼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 ↓, 미국 부과시 0.15% ↓), 금속제품(철강, 각각 0.10% ↓, 0.13% ↓),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 ↓, 0.09% ↓) 등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 전자 제품(0.10% ↓, 0.13% ↓)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다만,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탄소가격을 이미 부담(톤당 15달러로 가정)하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 됨

<https://bit.ly/2WCodDv>

국내 수소충전소 이제서야 100 호기... 정부, 충전소 구축 속도낼 듯

7/30 - 환경부,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 2 터미널에 구축된 100 호기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온라인 준공식 개최. 수소차 보급이 세계 1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여건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차 수소 충전소 구축에 속도 내는 모습.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전국에 누적 310 기를 구축할 계획

- 지난 4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수소차 보급률은 세계 1위지만 충전소는 69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충전소 1곳당 차량 대수는 180대로 1곳당 224대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로, 이번 100 호기 수소충전소를 기준으로 해도 충전소 1곳당 차량 대수는 150대 정도 (3월 말 조사 때의 1곳당 9대인 독일, 38대인 일본, 56대인 중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

<https://bit.ly/3fdlBIV>

미국인 3명이 평생 만들어낸 탄소에 1명 사망... "기후 정책 더 신경 써야할 것"

7/30 - 미국인이 생성하는 이산화탄소가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 1인 당 생성되는 탄소 양에 비해 훨씬 많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 발표. 또한 이산화탄소 4434 미터톤이 발생하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2020년 전 세계 통계적으로 12.8명이 평생 동안 방출하는 규모의 양이지만, 미국인의 경우 3.5명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양인 것으로 집계 (칼럼비아 대학교 다니엘 브라이슬러 교수 연구팀)

- 브라이슬러 박사, 이번 연구는 개인 활동에 의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것이지만, 사실상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후 정책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지난해 미국 미시건대학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국가별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중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수출과 관련된 배출량이 약 1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https://bit.ly/3C5OUR9>

백악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40% 달성 추진

7/30 - 2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미국 자동차 업계에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최소 40%까지 높여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남. 이르면 이번 주, 2026년까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한 예정

- 소식통들은 자동차 업계의 자발적인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가 50%까지 높아질 수 있으나, 아직 업체간 이견이 있어 자율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망. 전기차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측은 이날 로이터 보도한 내용에 대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은 부정확하다"고 전망. UAW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전기차 판매 비중 의무화에 반대해오고 있음. 2035년까지 가솔린엔진 픽업트럭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GM도 백악관과의 협회에 대해 언급을 피했음. 포드는 백악관과의 협회에 대해 언급을 피했으나,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최소 40%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임

<https://bit.ly/3im2Sq8>

▲ **기타/통합**

Could cryptocurrency and ESG become the new norm?

7/26 -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채굴 기업들은 채굴 장비에 필요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다행히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고,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석탄 연료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의 Viridi Funds,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에 의존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ESG 암호화폐 ETF "RIGZ" 출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도 CoinShares가 Viridi를 후원하고, Invesco의 블록체인 ETF BCHN 출시에 협업을 맺은 점을 감안했을 때, 유럽에서도 RIGZ와 유사한 상품이 출시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투자자나 채굴 기업들이 Ripple, Stellar, Cardano, EOS, NEO와 같은 채굴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PoW(작업 증명, Proof-of-Work) 방식 대신 PoS(Proof of Stake) 프로세스를 통해 암호화폐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 게다가 암호화폐는 상품에 보유한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같은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보유 중. 그렇기에 암호화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핵심 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정부 및 규제기관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ESG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https://bit.ly/3BKkDY9>

7/26	<p>The SEC Is Considering Rules That Would Discourage Transparency And Encourage Inaccura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 클레이튼 SEC 前 의장이 재직하던 시절 SEC 는 의견권 자문회사(proxy advisory)들로 하여금 투명성을 개선하고, 부정확성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문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겐슬러 現 SEC 의장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기 보다는 진행 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방향의 규정 제안 - 당시 규정은 의견권 자문사들이 투자자들에게 ESG 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는데,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개혁안을 폐지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상장사들과 마찬가지로 자문사들에 적용되는 사기방지 조항(anti-fraud provisions)도 폐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이 낮은 수익률 및 재정 안정성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라고 지적 <p>https://bit.ly/3rOV5ok</p>
7/27	<p>"사회 문제에 깨어있는 척"... 워크 워싱(Woke Washing) 논란에 휘말린 기업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시대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동반 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워크 워싱(Woke Washing)'이라는 개념이 대두. 워크 워싱이란, 기업이 사회적 문제나 가치에 대해 깨어있는(Woke)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함. 친환경 위장인 '그린 워싱'과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일례로, 나이키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Black Lives Matter(BLM) 이슈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종차별에 적극 반대해 왔음. 그러나, ESG 행동주의 비영리단체 As you Sow 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기업(S&P 100) 중 71%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임직원 인종 다양성 자료(EEO-1 Form)를 제출한 반면, 나이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s you Sow 가 해당 자료를 오는 9월 주총 결의안으로 제시할 것이 알려지자 나이키가 이에 대응, 美 SEC 에 결의안 무효 요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이키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 <p>https://bit.ly/3zTOA6e</p>
7/27	<p>What companies (and the SEC) can learn from U.K. ESG reporting guid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ESG 공시 개선 방법을 설명하는 보고서 발표. 규정 변경에 따른 ESG 정보 공개의 품질 및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규제 기관들에 1) 높은 수준의 ESG 데이터 생산 2) 정보의 신뢰성 보장 3) ESG 정보 접근성 4) ESG 정보 소비 5) ESG 정보 공시 활동 모니터링 및 감독 6) ESG 정보 규제 관련 사항들을 개선해줄 것을 제안 - FRC 는 기업들이 해당 부분들을 쉽게 개선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개선책이 상당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 예를 들어 ESG 보고서 작성 시 SASB 표준을 택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업은 그 표준을 따라야하며, 사용 중인 측정 기준을 언급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 <p>https://bit.ly/373IAeU</p>
7/27	<p>미 공시 의무화법 논란..SEC 內 공화당 의원 반대성명으로 재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스터 피어스 美 공화당 의원, ESG 공시 의무화법은 필요하지 않고, 기존 SEC 공시법으로 ESG 관련 이슈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ESG 공시 의무화법 반대 성명 제시 - 피어스 의원은 ESG 관련 논문 10개를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의원의 반대 주요 논점은 ESG 를 법제화하기에는 개념이 모호하고 정치적이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ESG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의 대표 사례로 ESG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 비공개와 상이한 기준의 난립을 지적 - 또한 피어스 의원은 SEC 의 존재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형성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시장 육성이라고 주장하며, SEC 의 중심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ESG 공시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업 공시를 기존 규제 프레임 워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 - '기업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은 지난달 6일 (현지시간) 찬반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미국의 상장 기업이 ESG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p>https://bit.ly/3ybp00X</p>
7/28	<p>영국 금융당국, "여성이사진 40%까지 높여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상장기업 이사진 중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며, 최소 한 명의 비백인 소수인종을 포함하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 밝힘. 블랙록,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30%의 여성 이사진 확보를 권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과감한 조치라는 게 현지 반응 - 이번 권고 규정은 기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구속력은 없음. 하지만, 해당 권고안은 '준수하거나 혹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명(comply or explain)'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 FCA 는 올해 말까지 규칙 변경을 마무리한 후 런던거래소의 보통주나 프리미엄주에 상장된 1,160개 기업에 적용할 방침. 이에 따라 런던거래소 상장 역내외 기업들은 이 같은 목표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연례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FCA 는 또한, 기업 이사회 의장, CEO 또는 CFO 와 같은 고위급 직위에도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임명되도록 권고 <p>https://bit.ly/3yiM1ue</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7/26~30)

▲ 기후 및 환경 관련

Chevron Phillips Chemical failed to report imports of 18 toxic chemicals, letters show

7/27 - Chevron, 지난 몇 년 간 미국으로 수입된 최소 18 개의 독성 화학물질 상당량을 규제 당국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전에도 Chevron 은 상업용 및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는 발암 물질 벤젠 3.5 억 파운드를 규제기관에 공시하지 않은 바 있음
 - 현재, 美 환경보호청은 기업들에게 수입하는 대량의 제조 및 수입 화학 물질을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화학 공장의 근로자와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소비자 등에 대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 비영리감시단체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의 법률고문 Robert Sussman 은 화학물질 보고에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https://reut.rs/2TB4BOX>

Audi Exemplifies Mission:Zero Sustainability Strategies At Neckarsulm Site

7/27 - 아우디, 2025 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Neckarsulm 공장 현장에서 1) 탈탄소화 2) 수자원 사용 3) 자원 효율성 4) 생물 다양성 등 4 개의 주요 영역에 대해 목표 설립
 - 구체적으로 1) 2025 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전기자 생산, CHP(열병합발전소) 공장 내 바이오가스 사용,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공장 건물 설립, 저탄소 연료 사용 차량을 공장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 설치 등. 2) 물 사용량 절감: 폐쇄형 물 순환 시스템(closed water cycle system) 시행, 2022 년 신규 물 공급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시범 프로그램 실시. 3) 폐기물 관리: 현장 내 비닐봉투 폐기물을 쓰레기 봉투로 전환시켜 지출 비용 절감,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재활용 불가능한 부품 포장재 제거 등 4)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매년 35 중 이상의 꽃을 심는 '꿀벌 프로그램' 진행, 생물 다양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 많은 환경 프로젝트 지원
<https://bit.ly/3ydEDAm>

[ESG 기업탐방]⑩ 노퍽 서던 철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철도' 꿈꾼다

7/29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기준에 따라 165 개의 보도 데이터 항목과 8800 개 이상의 출처 분석을 결합하여 평가한 결과 미국의 철도기업 '노퍽 서던 철도(Norfolk Southern Railway)'가 2020 년 100 대 지속가능기업에 등극
 - 동사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 사회책임 보고서에 따르면, 2019 년 노퍽 서던 철도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고속도로 운송 배송에 비해 약 1500 만 미터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집계. 동사의 ESG 경영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환경 분야로, 지난 26 일 (현지시간) 노퍽 서던 철도는 오는 2034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42%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https://bit.ly/3zTNJ5y>

▲ 기타/통합

10 Top ESG Stocks on the S&P 500

7/26 - 현재 수 조 달러의 가치를 보유한 ESG 투자, 2025 년에 AUM \$50 조 넘어설 것으로 전망. 이는 글로벌 전체 투자 AUM 의 1/3 에 해당하는 수준 (Bloomberg). 그 중에서도 ESG 투자 시 고려해야하는 상위 10 개 종목으로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베스트바이 ▲홀미도 ▲델라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랜서치 제시
 1) 엔비디아(NVDA): FY21 엔비디아의 자산 기부금은 \$2,500 만 초과했고, 전 세계 5,000 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 그리고 동사는 2025 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65%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사용하겠다고 약속. MSCI EXG Research 에서 AAA 등급 받았으며,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중 구성 비중이 2 번째로 큰 종목
 2) 세일즈포스(CRM): Suzanne DiBianca 세일즈포스 CIO 는 동사의 비즈니스가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가장 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 실제로 세일즈포스의 글로벌 사업장들은 낮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사에 탄소 중립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음. 동사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MSCI ESG 평가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AA 를 획득
<https://bit.ly/3x6Eq2>

농협금융, 'ESG 국제협약' 가입 계획 확정

7/26 - 농협금융지주, 2 차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위원회(녹색위)를 개최해 '농협금융 ESG 국제협약 가입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설명. 동사는 'ESG 국제협약 가입 계획'이 녹색위에 상정 완료됨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국제협약에 가입해나갈 계획
 - 특히 농협금융은 올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에 발맞춰 국제표준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내재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변화 도출을 위해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 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국제협약 TF 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TCFD 지지선언과 이행공시를 완료하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
<https://bit.ly/3y3IJ2u>

Food industry starts to measure sustainability

7/27 - 전 세계적으로 식품 시스템 내 더욱 많은 이해 관계자들(기업, 비영리단체, 농부 및 정부 등)이 새로운 지속가능성 지표와 등급 평가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있는 모습. 특히 이러한 트렌드는 벤치마크 및 인덱스 평가가 1) 은행, 투자자 그리고 음식 공급망 관계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팩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동시에 그들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식품 시스템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글로벌 비영리 지속가능경영 연합(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는, 지표(Benchmarks)가 기업들이 지속가능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지표는 어떤 조직이 뒤쳐져 있는지 보여주고, 공급망 파트너, 투자자, 정부와 같은 다른 조직들로 하여금 뒤쳐지지 않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 또한 WBA 는 올해 말 UN Food Systems Summit 에서 공개할 식품 및 농업 기업들과 관련된 자체 벤치마크 출시 준비 중. 동 벤치마크는 환경, 영양,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350 개의 글로벌 식품 및 농업 선두 기업들의 순위를 평가할 예정
 - 영국 Sustainable Food Trust,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글로벌 농장 지표(Global Farm Metric)를 활용해 농장의 지속가능성 개선 시도. 이들은 주요 리테일 업체, 은행 및 환경 NGO 를 포함한 35 개의 연합과 협업하여 수자원 사용, 축산, 인적 자원 등 11 개 카테고리 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 노력. 글로벌 식품 무역 시대에 해당 지표를 활용한다면, 국가간 낙농업 관련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예정
<https://on.ft.com/2WhTnQn>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7/26~30)

▲ 주식 및 펀드 시장

ESG investing is booming, and investors are 'winging it when it comes to research'

- Investopedia-TreeHugger 이 실시한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ESG 투자 종목 중 수익률이 양호했다고 손꼽은 종목들이 ESG 평가 관점에서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나 나타남. 응답자들은 테슬라와 애플을 각각 1,2위로 선정했는데, 테슬라는 MSCI의 ESG 등급 평가나 Sustainalytics의 평가기준에서 그다지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지배구조 및 노사관계로 인한 리스크 문제를 가지고 있음. 애플도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 보유
- Caleb Silver Investopedia 에디터,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선택하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로, 특히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설명.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젊은 세대들의 ESG 투자 관심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 투자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https://yhoo.it/3ldST8D>

Europe's first enterprise software ETF to launch with ESG screen

- Purpose Investments, HANetf와 파트너십 체결하고 어도비, 소피파이, 트위터와 같은 SaaS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익스포져 제공하는 Purpose Enterprise Software ESG-S UCITS ETF(SOFT) 출시 예정
- 동 ETF는 Solactive Purpose Enterprise Software ESG Screened Index (NTR)를 추적하며 유럽 최초로 ESG 기준을 적용시킨 소프트웨어 투자 ETF로 출시. 해당 지수는 Adobe, Shopify 및 Twitter와 같은 기업과, 페이콤 소프트웨어, 팔로알토 네트워크, Hubspot과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해 54의 구성종목을 담고 있음.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산 산업과 화석연료 관련 기업은 배제시키는 ESG 스크리닝 진행

<https://bit.ly/2VfzQjf>

Why the FAANGS have no place in a sustainable or ESG portfolios

- Stewart Investors의 Nick Edgerton, 글로벌 증시 내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FAANG)이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ESG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ESG 지표에서 훌륭한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SNS 상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상존.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시설 내 노동자 권리 및 노동 조건과 관련해 항상 염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
- 한편 모든 사람들이 FAANG이 지속가능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MainStreet Partners의 연구 이사 Susana Coutinho는 FAANG이 전 세계 탄소 발자국 감축에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ESG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직접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이러한 대형주들이 저탄소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은 개선 여지가 충분하고 투자자들이 개선 과정에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

<https://bit.ly/3eZaAVn>

Global sustainable fund assets hit record \$2.3 tn in Q2, says Morningstar

- 2021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운용자산은 \$2.24조(+12% QoQ)로 사상 최고치 기록. 그 중 유럽 ESG 펀드 자산은 \$1.83조(+12.6% QoQ)로 81.6%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 2분기 유럽 전체 펀드 자산 증가분(4.6%)과 비교해서도 외형 확장 속도가 두드러졌음. 미국 내 ESG 펀드 총자산도 \$3,040억을 기록(QoQ +14.4%, YoY +91.2%)하며 증가세 지속. 올해 들어 미국에서의 ESG 관련 규제 정비 및 투자가 빨라지고 있음을 반영
- 다만, ESG 펀드항 자금 유입은 \$1,392억(QoQ -24.9%)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축소. 호주 및 일본에서의 자금 유입세는 견고 했지만, 유럽, 아시아 및 캐나다에서 자금 유입 강도가 약화 됨. 유럽의 경우, \$1,124억이 유입되며(-25% QoQ) 규모 자체는 줄었는데, 여전히 유럽 전체 펀드항 자금유입 규모에서 42.7%를 차지(\$2,630억 중 \$1,124억). 미국 ESG 펀드으로도 2분기 \$176억이 유입되며 전분기 대비 -18.1% 감소했으나, 전년동기(\$104억)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https://reut.rs/3rLjkDF>

▲ 채권 시장

산은, 5개 증권기업에 ESG 인증채권 발행 지원

- 산업은행, 공공-금융 계열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저변 확대를 위해 거래 증권기업 5개사의 ESG 인증 회사채 1000억원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힘. 이는 대상기업의 ESG 경영인식과 국제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ESG 지원 의지에 따른 것
- 단석산업, 디섹, 서진산업, 모트렉스 4곳은 이번 계기로 첫 ESG 채권을 발행. SGC 에너지는 6월에 이어 이번엔 두 번째 ESG 채권을 발행할 예정. ESG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선박 건조, 전기·수소차 등 녹색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NICE 신용평가에서 녹색채권 인증을 받음. 산업은행은 "각 회사의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산업은행이 신용을 보장하고 유통화하는 구조로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화 방식을 통해 ESG 채권을 발행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

<https://bit.ly/3fdx70n>

ESG 레버리지 론·하이일드 채권 발행 급증

- 29일 S&P에 따르면, 레버리지 론이나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유럽 시장의 ESG 레버리지 론은 166억 유로로 전체 레버리지 론의 24%를 차지, 지난해 24억 유로(전체의 5%)보다 큰 폭으로 증가. ESG 하이일드 채권 발행 역시 올해 100억 유로로, 전체 발행 규모에서 14%를 차지, 지난해 15억 유로(전체의 2%)에서 급증
- 미국 시장에서는 최초의 ESG 하이일드 채권이 지난 1월 9억 달러 규모로 발행 됨. 6월 30일까지 발행된 ESG 하이일드 채권은 62억 달러로 늘어남. 아직은 전체 하이일드 채권 발행량의 3%에 불과하나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https://bit.ly/3fhmtWX>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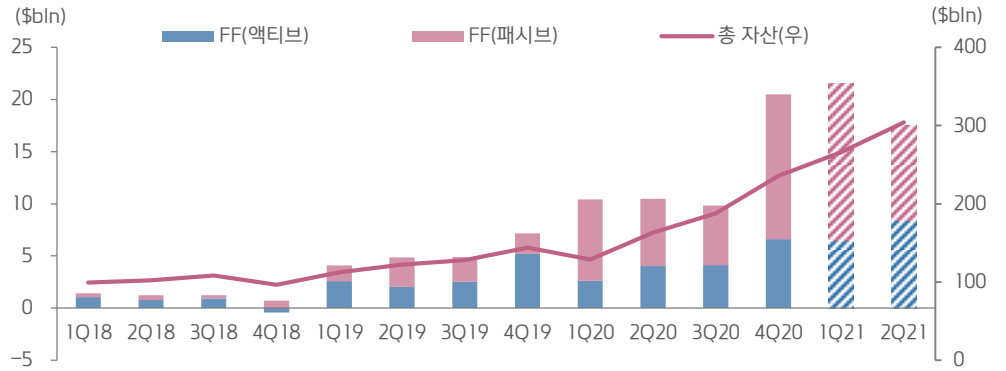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유럽 기후법 승인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는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중-EU 탄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탄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의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한국	K-탄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탄소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이르면 9월, 늦으면 연말로 연기
연내	한국	ESG 포털 구축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ASEAN 탄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탄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탄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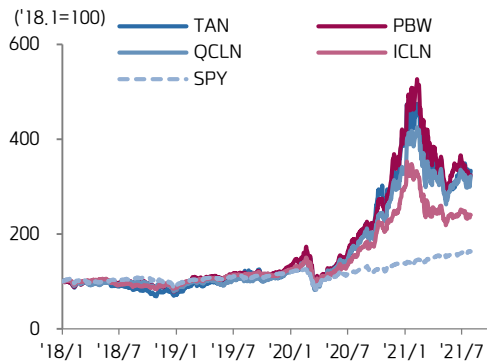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2분기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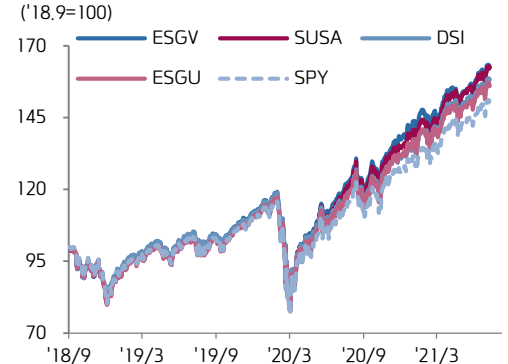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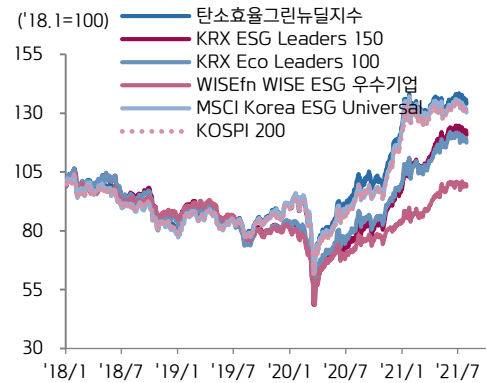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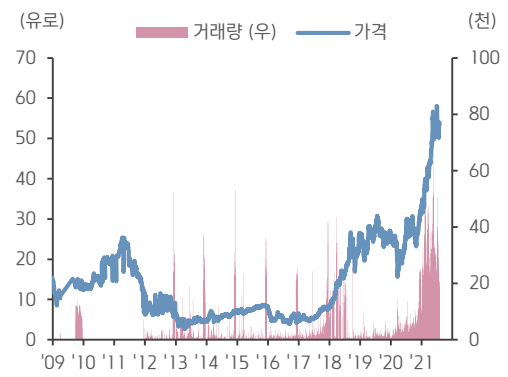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0,831.6	-0.6	+1.7	+5.4	+17.0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174.9	-1.8	-5.7	-4.0	+0.6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325.0	+0.2	+0.3	+1.9	+8.9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6,056.8	+0.7	-3.5	-2.3	-19.6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871.5	-0.5	+1.9	+5.2	+16.6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772.5	-0.1	+2.5	+6.0	+19.2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768.9	-0.1	+2.5	+6.3	+19.0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552.1	-0.0	+2.3	+6.6	+19.3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360.3	-0.1	+2.2	+6.0	+18.9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352.1	+2.6	-3.0	+3.0	-16.6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663.7	+4.0	-2.7	+2.9	-4.9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372.3	-0.5	-1.4	+0.4	+6.7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925.1	+2.6	-9.3	-4.8	-19.1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839.0	+1.7	+5.1	+8.8	+22.2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436.6	+0.2	+1.2	+1.9	-1.1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24.7	-0.3	+1.8	+5.6	N/A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168.6	-0.4	+2.0	+5.1	+16.9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155.4	+2.4	+0.8	+6.0	+19.2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141.9	+1.6	+4.2	+6.7	+21.3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073.1	+2.5	+6.2	+9.9	+22.2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72.1	+0.3	+0.7	+2.4	+16.0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042.9	+1.0	-2.8	-0.9	+16.0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994.4	+0.2	+0.4	+0.2	-0.3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983.4	+0.7	-3.0	-1.1	+15.0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60.4	+3.4	-4.1	-0.8	-9.9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62.5	-0.5	+0.5	+2.8	+12.6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61.5	-1.7	-5.3	-3.2	+3.7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04.7	+0.3	+1.4	+3.2	-1.1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02.0	-0.5	+3.1	+8.4	+18.2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681.3	-0.5	+1.9	+5.3	+17.9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07.0	+0.2	+0.1	+2.7	N/A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537.5	+3.4	-5.8	+9.5	+44.1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37.1	-0.3	-2.3	+1.1	+4.6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508.6	+0.0	+2.3	+5.6	+18.0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57.4	-0.3	+2.8	+6.8	+17.6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443.8	+2.0	+3.6	+9.8	+19.1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29.4	+2.1	+0.8	+6.9	+15.6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19.0	+1.6	-2.9	+2.9	+2.3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16.4	+0.1	+1.0	+1.6	-0.9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13.9	+1.3	-3.9	-2.8	-14.8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87.7	+1.8	-1.4	-2.6	-8.3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378.9	+0.0	+2.0	+6.0	+18.7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68.6	+2.3	-6.1	-5.5	-8.6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53.3	-1.2	+1.0	+4.8	+11.6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06.9	+1.7	+5.3	+9.6	+20.4

자료: Bloomberg, 주) 2021-07-3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6.5	+1.1	-2.4	+3.8	-4.8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66.1	-1.2	+1.2	+4.3	+15.3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3.0	+0.2	+1.0	+1.4	-1.8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252.7	-0.5	+2.0	+5.3	+17.9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51.9	-0.6	+1.7	+5.1	+17.1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45.3	+1.2	+0.3	+0.9	+21.7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40.8	+1.6	+3.3	+13.8	+18.4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40.7	+0.3	+0.5	+2.1	+8.4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26.3	-0.0	+1.1	+2.8	+8.5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20.2	+0.2	+1.8	+2.2	-0.9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14.1	+2.9	+4.0	+14.9	+16.3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06.2	+0.1	+0.7	+1.5	-0.6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4.4	+3.8	-0.1	+17.1	+8.7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92.5	+0.3	+0.5	+2.2	+9.1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80.5	+0.2	+1.2	+2.9	-1.4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8.0	-0.8	+0.9	+4.3	+14.4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76.7	-1.8	-5.7	-4.7	-0.4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73.6	+1.0	+0.3	+3.6	+14.7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69.2	-0.4	+1.8	+5.2	+17.5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65.5	-1.3	+2.0	+6.4	+14.1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53.1	+0.0	+0.1	+0.0	-0.0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48.8	+1.3	-6.3	-4.9	-14.6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7.9	-0.6	+2.2	+5.7	+17.4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34.2	+0.1	+0.7	+3.3	+9.2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33.2	+0.1	-0.6	+2.8	-10.5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9.7	-0.8	+0.1	+4.6	+11.7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5.2	-0.5	+0.6	+3.0	+12.2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13.1	-0.0	+0.3	+0.7	-0.1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05.2	-1.7	-4.7	-1.4	+4.8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96.6	+0.0	+0.3	-0.2	-0.9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6.5	+0.1	+0.8	+1.1	-1.3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5.8	-0.7	+2.1	+4.4	+17.4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85.8	+0.6	+1.6	+3.4	N/A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82.7	-0.5	+2.1	+5.5	+17.6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80.1	+0.3	+2.9	+7.1	+18.6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3.7	+1.7	+2.0	+3.2	+20.4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59.3	-0.6	+1.7	+5.4	+16.5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9.8	+2.3	+5.7	+8.3	+19.1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5.9	+0.1	+1.5	+6.6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5.2	-0.4	-12.2	-15.9	N/A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4.2	+1.1	-8.5	-11.0	N/A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3.6	-1.4	-4.5	-3.0	+4.4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33.6	+1.1	N/A	N/A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2.6	-0.2	+1.5	+4.9	+15.8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1.6	+1.1	-0.4	-1.2	+16.9

자료: Bloomberg, 주) 2021-07-3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6	-0.1	+0.5	+1.5	-2.7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3	+0.2	+1.4	+3.1	-1.2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0.2	-0.8	+1.6	+5.6	+15.5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6.7	-0.4	+2.0	+5.6	+18.0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6.7	+0.1	+2.0	+5.4	+17.6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4.5	-0.1	-0.0	+0.4	+0.7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4.1	+0.2	+1.1	N/A	N/A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0.7	+0.5	+0.9	+2.9	+19.8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1	-0.3	-0.1	+2.7	+10.1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9.2	+0.9	+5.5	+13.1	+14.2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7	+0.1	+0.8	+2.1	+7.2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	18.3	+0.7	+1.4	+3.0	+12.7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16.5	-2.3	-6.3	-4.7	+2.1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5.2	-0.7	-2.2	+2.2	+9.3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4.9	+2.4	+0.7	+3.0	+12.3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4.2	+0.6	+1.2	-0.5	+5.2
XJ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3.7	+1.6	-2.6	-1.5	+17.5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2	-1.4	-4.9	-0.7	+4.8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8	-3.9	-11.1	-5.7	-1.1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8	+1.3	-0.2	-0.5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5	+1.6	-3.3	-0.8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1	+0.9	+0.6	+3.3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0	-0.6	-1.5	+0.2	+6.6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9	-0.5	+1.8	+6.6	+12.4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6	-0.1	-4.1	-2.8	+21.7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	8.6	-0.5	+1.9	+8.1	+20.4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0.87	8.6	+2.2	+0.3	+2.3	+2.6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9	+0.2	+1.5	+3.1	-1.7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8	-0.0	+1.5	+3.6	+10.1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0.2	+0.1	+2.4	+7.4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2	-0.7	+2.9	+5.9	+17.4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6.9	-0.0	+1.7	N/A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0	+0.4	+2.3	+4.7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6	+0.1	+0.7	+2.2	+3.2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5	+0.6	+0.5	+3.3	+9.0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5	-0.4	-0.2	+0.1	+9.1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4	+0.7	-1.2	-0.3	+20.3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5.4	-1.4	+3.2	N/A	N/A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3	+3.2	+1.0	+6.2	+8.6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0	-0.2	+0.1	-0.2	N/A
LGBT	LGBTQ+ ESG100 ETF	ESG	0.75	4.0	-0.3	+1.9	N/A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4.0	+2.0	+5.3	+7.6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1	+0.4	+2.1	N/A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	2.3	-1.2	+0.7	+5.3	+18.2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0.7	+0.3	N/A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0	-0.2	+0.4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1.1	+1.3	+3.5	+21.5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1.1	-5.8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7-3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https://bit.ly/3A0gLAh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https://bit.ly/3zwIBVV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https://bit.ly/3imCdsG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https://bit.ly/36uDxnC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https://bit.ly/3hfBRER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https://bit.ly/3gYwUJ2C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D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0j0v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jd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c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OCi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